

[왜 스마트 스터디인가?]

1. 기업 문화

자유로운 분위기와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받고 이해될 때 저의 장점과 능력이 발현되며, 이러한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룰루레몬 여의도 스토어에서 주말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토어 근무자들을 에듀케이터라고 이야기하며 게스트분들께 제품에 대해서 에듀케이팅 해드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 약 1500만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매우 바쁜 스토어입니다. 주말 스토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남성복 파트를 혼자 담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매니저는 '어진이 어떤 식으로 게스트를 응대하고 에듀케이팅을 하든 모든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밀려오는 게스트 속에서 에듀케이팅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게스트를 중심으로 응대하였으며, 피팅룸으로 안내하며 빠르게 회전되도록 하였습니다. 스토어 내에서 게스트들이 만족하는 경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저만의 방법과 결정으로 최선을 다하였고 신기하게도 이날 남성복 매출 26%를 달성하며 최고 성적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의 진행에 있어서나 심지어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등 작은 것에서 업무 전반적인 부분까지 자유롭게 결정하고 나의 선택과 결정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열심으로 책임을 다하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 속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2. 내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와 성장 가능성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10년동안 활동했습니다. 이제 막 말을 하는 아기들부터 다 큰 성인들까지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일화입니다.

25개월된 아기가 자꾸 '띠부령~ 띠부령' 이란 말을 해서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는지 못하게도 하고 혼도 냈습니다. 어느 날 또 '띠부령~' 이라고 하는 걸 듣고 어머니가 혼내러 가셨는데 알고 보니 아기 상어 영상이 끝나고 자동 재생된 스페인어 편의 아기 상어 노래였다는 일화 입니다.

교회 아기들을 보고 이러한 이야기 들으며 스마트스터디 콘텐츠의 힘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처음에 긍정적이고 재미난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언어와 습관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경험이 어린아이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미친다는 점이 참 재미났습니다.

제가 열심을 다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세상과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저의 열심과 책임에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되며 교회에서 아이들을 마주할 때 당당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스마트스터디가 한국의 디즈니를 꿈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의 일화에서 이야기한 영향력과 77억에서 770억까지의 성장률, 유튜브 단일콘텐츠 영상 조회수 1위, 사내에 보관되어있는 수많은 실버, 골드버튼 그리고 다이아버튼 등을 보고 들으며 스마트스터디의 꿈이 실현 가능한 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스마트스터디의 꿈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그 회사의 따뜻한 꿈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HR직무에 대한 고찰]

1. HUMAN. 사람이란,

그리스 신화에서 시지프는 신들을 기만한 죄로 무거운 바위를 계속해서 굴러 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바위를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 다시 바위를 다시 올려야 하는 의미 없고 부질 없는 행위를 계속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위를 굴러 올리고, 그 사이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의미를 찾습니다.

'나는 누구지?, 왜 해야하지?, 왜 살아야 하지?, 왜 행복해야하지?'

이러한 의미들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우울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자라면서 삶의 모든 순간에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때로는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꽤 오랜 시간을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늦게 잘못된 답임을 깨닫고 다시 되돌아 가기도 합니다. 또 의미를 찾지못해서 우울감에 빠져 삶을 놓아 버리고도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미를 찾아 나아갔고 그렇게 하나, 둘 쌓아온 나만의 대답들은 성장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를 전하고 당신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인사 직무는 이러한 '사람'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구성원에게 조직의 바른 가치와 근로의 의미를 제시하고

조직에게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바위를 밀어올릴 힘을 제공합니다.

조직문화, 직무평가, 채용, 보상 등을 통해 조직구성원에게 기업의 가치와 의미를 제공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조직에 대한 의미가 명확해 질 때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며 구성원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조직구성원의 성장은 조직의 자원이 되고 조직의 성장이 됩니다.

스마트스터디의 인턴 경험을 통해 '사람'이 '사람다워짐'을 지원하는 일을 배우고 익혀 전문적인 인적자원관리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2. 같이의 가치, 공동체 힘을 믿습니다.

러닝을 통해 '같이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JTBC 마라톤에 출전하였습니다. 42.195라는 거리조차 가늠이 되지 않는 도전을 위해 훈련을 하고 보강운동도 하며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충성은 올렸고 시작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손발이 저며오고 발가락은 뒤틀려 계속된 통증을 밀어올리고, 두다리의 근육이 급격히 수축되며 조여와 몸의 모든 감각 중에 고통, 통증만이 남았습니다. 도전을 위해 준비해온 그간의 훈련은 고통의 순간의 아무런 동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뛰어!”, “할 수 있다!”, “포기 하지마!”

저를 달리도록 한 것은 함께 뛰는 사람들, 계속 따라다니며 응원해 준 크루원들, 그리고 완주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력은 저를 3시간 47분이라는 기록으로 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인 회사에서 개인은 각각의 주자입니다. 어떠한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HR은 이러한 주자에게 가자 달려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달리도록 훈련도 개최하며 개인의 러닝을 지원합니다. 또한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이’ 달리는 여러 주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들을 응원하는 것이 HR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함의 가치를 믿습니다. 함께를 만들어가는 직무 HR을 통해 ‘같이의 가치’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3.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 생각하신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급여, 휴가, 성과관리, 개인정보 등 실제 업무에서는 생각보다 사사롭고 번거로운 일들과 실수하면 안되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 라는 이야기를 많은 직무 관련자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인사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위의 조언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병사들의 휴가, 외출 외박부터 복무기간 내 수업 신청, 외진, 경조사 심지어 간부들의 교육까지 일과 시간, 주말 상관없이 쏟아졌습니다.

주말에 또 일이 생겨서 한숨을 쉬며 행정반으로 내려오는 걸 보신 행보관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번거롭고 중요한 일들이 다보니 책임감 많이 드는 것들 다 이해한다. 그래도 애네들한테는 중요한 일들이니까 번거롭더라도 좀 더 신경 써서 잘해줘라’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일’일 수 있지만, 반대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삶을 이어가는 문제고 개인의 삶에서 특별한 순간들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으며 책임감이 두터워졌습니다. 또 스스로 돌아보니 사람들의 이러한 문제들과 순간들을 지원하고 격려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직무 경험]

러닝 크루 CAUON 을 통해 운영, 인사 직무를 간접 경험 하였습니다.

1. CAUON 만의 문화를 만들고 운영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같이의 가치’, ‘진짜로 즐기는 러닝’, ‘속도보다 완주’라는 핵심가치를 설정했습니다.

용산 기차길, 압구정 토끼굴 등 색다른 러닝 코스를 물색하고 신나는 음악과 스피커를 준비하여 CAUON 과 함께하는 러닝이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뒤처지는 사람도 하나하나 챙기며 달렸고, 완주선에서는 모두가 마지막 주자를 응원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뒤처지더라도 완주하는 것에 목표와 의미를 두었으며 그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규 러닝 행사 및 마라톤 대회 등의 참여 여부를 자료화하였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회원은 개별적 연락을 통해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50k, 100k 챌린지 이벤트를 운영하고 학기 말 우수 참가자, 기록 향상 자 등 다양한 시상 프로그램을 통해 러닝에 대한 흥미를 꾸준히 키워나가도록 하였습니다.

2. 신입 선발 과정을 개편하고 이탈을 막기 위한 적응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180 명가량의 지원자 중 40 명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 플랫폼과 지원양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러닝을 통해 느낀 점, 앞으로 활동 목표 등의 질문 통해서 CAUON 의 가치와 맞는 지원자라는 정성적 기준을 정했습니다.

독스 자료와 한글 메일머지를 활용하여 지원서 선발 시 필요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행사 참여 횟수, 활동 가능 기간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정성적, 정량적 기준을 기반으로 지원자를 선발하였고 해당 지원자들이 빠르게 CAUON 에 적응하도록 친밀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 기간 동안 최소 2 회 - 최대 7 회까지 참가하여 러닝을 하고 뒤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여 단기간에 적응하도록 하였습니다.

10 명의 크루원으로 시작해서, 마라톤 주로에서 알아봐 주는 사람은 없었으며, 학기가 개편되며 크루원의 절반 이상이 이탈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꾸준히 100 명 이상의 정회원을 유지하며, 매 학기 180 명 가량의 지원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러닝 크루 사이에서 인정받아 숙명여대, 서울대 러닝 크루 등 신생 러닝 크루들에게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CAUON 의 핵심가치는 당시 운영진 모두가 러닝을 하며 배우고 느낀 긍정적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에 내가 먼저 반하여 사람들을 하나, 하나 챙기고 조금이라도 더 가치가 잘 공유되도록 제도적으로, 실행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노력 하였습니다.

실제로 CAUON 을 통해 변화하는 사람들과 공유된 가치가 공동의 목표가 되어 좋은 성과로 이어질 때 무엇이랴 표현할 수 없는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입사 후 하고싶은 것]

1. 마인드풀 프로그램

최근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삶의 변화로 이른바 '코로나 블루'부터 다양한 내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밀레니얼세대, Z세대라 불리는 JOB 시장의 새로운 세대들은 조직 결정 요인 중 하나로 복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혜택'을 꼽습니다.

마인드풀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건강한 내면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심리 전문가님과 다양한 검사들을 통한 나에 대한 이해, 대화 카드 등을 통한 구성원 간의 진솔한 커뮤니케이션, 요가 필라테스 러닝 등을 통한 마인드풀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마인드풀 프로그램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오늘의 안녕, 내일을 위한 다짐 등 내면의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2. 전 직무 인터뷰 및 채용 피드백 프로그램

모든 직무에 대한 직무 인터뷰를 만들고 싶습니다.

미디어 콘텐츠가 발달하며 다양한 채용과 희망 기업에 직무 정보를 동영상 을 통해서 수집합니다. 현재 스마트스터디의 직무 영상이 유튜브나 채용 채널을 통해 공개되어 있긴 하나 한정적입니다. 모든 직무 영상을 통해서 지원자들이 더 양질의 정보를 얻고, 더 적합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직무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채용 단계에서 입사지원자들에 대한 피드백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탈락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와 부족함으로 귀결시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모두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면접자에 한해서라도 채용 항목 점수 체크리스트 및 결과 내용을 데이터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지원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채용 또한 회사의 문화이며 회사의 이미지를 제일 처음 선보이는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채용문화를 통해 모두가 선망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